2015년 광주 하계 U대회 향후일정	2012년 4월 선수촌 착공	2012년 6월 경기시설 확정	2012년 11월 세계 대학생 배드민턴 선수권	2013년 4월 경기장 개·보수 완료	2013년 12월 경기장 운영계획 수립	2014년 3월 FISU주최 포럼 개최	2014년 7월 FISU실사단 최종 점검	2014년 12월 신규 경기장 완공	2015년 상반기 선수촌 완공	2015년 7월1일 U대회 개막

시민 참여, 첨단기술-환경 아우르는 국제도시 만들어야

광주 대회 앞으로 4년 4가지 과제

4년 앞으로 다가온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흑자대회를 만들기 위한 흥행요소를 발굴해 세계 미디어의 관심과 기업의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봉사, 광산업 및 LED 등 지역의 첨단기술과 녹색 및 생태를 아우르는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도 필수다. 남은 4년동안 준비하고 해결해야할 4대 과제를 점검해본다.

1 지역부담 줄여 흑자 달성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이벤트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개최도시가 폐회 이후 재정 부담에 허덕이는 경우가 상당수다. 광주는 일찌감치 예산 상당부분이 투입되는 신규시설 투자를 최소화하고 광주·전남의 기존 경기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호평을 받았다. 이후에도 FISU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선수촌 역시 구도심 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에 나선 것은 도심재생과 재정부담 최소화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벤트 흥행 요소 도입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시는 이미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UN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의 협의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 정세 속에 남북의 대학생들이 한 데 모여 체육 이벤트를 통해 하나가 되는 장면은 세계미디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연계해 프레 올림픽 성격으로 치러 유명 대학생 스타들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조직위는 광주U대회만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미디어 이슈를 정기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3 자원봉사 시민중심 대회

국제이벤트와 시민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첫 대회이어야 한다. 관객이나 청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역·안내 자원봉사자는 물론 거리나 경기장에서 직접 2만여명에 이르는 선수단을 대하는 주체로 나서도록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2년째 운영되고 있는 대시민 교육프로젝트인 '유니버시아드 외국어 스쿨'은 그 좋은 사례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 매너나 문화, 지역관광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배출된 인력들이 대회 이전, 대회 기간, 그 이후에도 광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광주의 국제적인 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4 '문화·평화도시' 세계화

광주U대회 조직위는 2010년 유치가 결정된 직후 광주U대회를 문화, 생태, IT, 평화 등의 주제로 치르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수도와 녹색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미래방향과 맞닿아있다. 또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광산업과 LED 등 첨단기술, 정보산업은 물론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대표되는 인권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인정받는 무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4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U대회 조직위는 대회 마스터플랜에 따라 1만2000여개의 실행과제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사진은 조직위 사무실 앞 광주U대회 안내판.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015 광주 하계U대회 경기장 개념도

※하계U대회 유치 과정에서 광주시가 2010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측에 제출했던 기본 개념도여서 최종 확정된 경기장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 현재 광주시는 수영장과 종합체육관, 양궁장(축구장) 등 광주에 새로 건설할 3개 경기장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의 경우 전남지역 체육관에서도 경기가 치러질 예정임.

신축경기장·선수촌 마찰 장기화땐 성공개최 걸림돌

광주U대회의 중요시설인 신축경기장과 선수촌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축경기장은 최소 2014년 말, 선수촌은 2015년 상반기까지 완공기한이 못박혀 있어 이 같은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성공 개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U대회 선수촌=민선 5기 들어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조성 방침이 결정된 뒤 대기업들이 시공사 참여를 거부해 난항을 겪었으나 이후 광주시가 일부 미분양 물량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대건설이 극적으로 막판에 참여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건설업체를 컨소시엄에 참여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조합원분양공고 이후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권리가액(현재 소유 아파트의 가치)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주장에 조합원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현대건설 측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쟁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 역시 지난 2005년 재건축 방침 결정 이후 매매가격이 급상승해 실거래가격과 권리가액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기존 화정주공아파트가 11~19평인데 비해 재건축아파트가 25~40평으로, 면적 차가 큰데다 조합원 분양가 역시 평당 690만원으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대 신축 경기장 '우리 지역으로'=광주U대회 개최를 위해 신축되는 경기장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양궁장 등 3개로 이들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역 내 논란도 한창이다.

이용섭 국회의원(광주 광산을)과 광산구 등이 여전히 수영장의 입지를 기존의 수완지구로 해줄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광주시가 대학들로부터 유치희망을 받으면서 대학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광주대가 유치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대학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신설 경기장의 입지는 지역 간 균형발전, 시 재정부담 최소화, 시민 이용 편의성, 운영비 최소화 등을 기준으로 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고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지역역량을 집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다목적체육관 5만5000㎡ 이상, 수영장 5만㎡ 이상, 양궁장 3만6000㎡ 이상 등의 경기장 부지를 대학이 제공하면 향후 운영은 대학이 맡고 공사비는 시가 부담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작가 사정으로 만평 쉽니다